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견』에 대한 의견서

동 건은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2000. 9. 7)후 당초 하수처리시설계획은 탄현면 법흥리 1298번지 일대에 곡릉천 수계인 벽제, 금촌, 통일동산지구를 통합처리 하였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한 권역별 통일동산지구, 금촌지구를 2001년 6월 7일 별도 분리 처리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 당초 사업부지 68,472㎡에서 22,466㎡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공사중(현재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 중)에 있는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시설(22,466㎡)은 도시계획 시설로 신설 결정하고, 동 규모(22,466㎡)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함은 물론 당초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지(46,006㎡)를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 조치하고, 사업부지(68,472㎡)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파주시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2001년 6월 7일 하수처리시설 분리방안 결정 후 동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으며

또한, 동 하수처리시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과 지적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지연은 물론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의 차질을 빚게된 사항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9일

파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